

河西 金麟厚 先生の 生涯와 交遊 様相

金東河*

<차 례>

- | | |
|------------|---------------|
| 1. 序言 | 3. 交遊 人物과 交遊詩 |
| 2. 生涯 概括 | 3.1 姻啞와 師弟 |
| 2.1 成長・修學期 | 3.2 泮宮과 湖堂 |
| 2.2 出仕・致仕期 | 3.3 溪山騷客 |
| 2.3 講學・著述期 | 4. 結言 |

1. 序言

河西 金麟厚 先生(1510-1560)은 16세기를 대표하는 學問과 節義와 文章에 뛰어난 儒學者로, 正祖 時代に 文廟에 配享된 湖南 唯一의 인물이다.1) 일찍이 正祖는 河西에 대해 “學問과 節義와 文章에 있어 이를 다 갖춘 사람은 홀로 金河西 한 사람뿐이다.”2)고 하여 각별한 존경을 나타낸 바 있으며,

* 瑞江情報大學校

1) 文廟에 配享된 東國18賢은 다음과 같다.

雨堂 薛聰, 孤雲 崔致遠, 晦軒 安裕, 圃隱 鄭夢周, 寒暄堂 金宏弼, 一蠹 鄭汝昌, 靜庵 趙光祖, 晦齋 李彦迪, 退溪 李滉, 河西 金麟厚, 栗谷 李珣, 牛溪 成渾, 沙溪 金長生, 重峰 趙憲, 慎獨齋 金集, 尤菴 宋時烈, 同春堂 宋浚吉, 玄石 朴世采.

2) 『正祖實錄』卷44, 20年, 丙辰 六月, “夫道學也節義也文章也 無一不備者 獨河西一人矣”

尤菴 宋時烈은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道學과 節義와 文章에 있어 대개 등급의 차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겸하고 어느 한 면에 치우치지 않은 이는 몇이 없었는데,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하서 김 선생을 내시어 갖추게 하였다.”3)고 칭송한 바 있다. 栗谷 李珣 또한 “맑은 물에 핀 연꽃 같고, 비껴 뒤 맑은 바람 속의 맑은 달과 같다. 出處가 올바르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4)고 하여 名利를 초월한 삶을 찬미한 바 있다.

河西의 고고한 삶을 되새겨볼 때, 先生의 뛰어난 학문과 탁월한 인품으로 인한 다양한 교유 범위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先生이 海東의 濂溪이자 湖南의 孔子로 추앙되는 인물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는 1600여 수에 달하는 漢詩의 대다수가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인물과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비롯된 인간적 교유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河西의 交遊 關係를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먼저, 先生의 一生을 1.成長・修學期 2.出仕・致仕期 3.講學・著述期の 三期로 나누어 개괄해 보고, 이어 交遊 様相을 1.姻啞와 師弟 2.泮宮과 湖堂 3.溪山騷客으로 나누어 文集에 10수 이상을 남긴 인물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고찰해보므로써 漢詩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生涯 概括

2.1 成長・修學期

3) 『河西集』附錄卷一, 宋時烈撰〈神道碑銘〉, “國朝人物道學節義文章 忒有品差 其兼有而不偏者 無幾矣 天祐我 東 鍾生河西金先生 則殆庶幾焉.”

4) “清水芙蓉 光風霽月 出處之正 海東無與倫比.”

河西는 1510(중종 5)년 全羅道 長城縣 大麥洞(현 장성군 황룡면 맥동리)에서 參奉公(諱 齡)과 玉川趙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字는 厚之, 號는 湛齋 또는 河西, 諡號는 文正이다. 先生은 어려서부터 夙成하였고 文才가 숙성하여서 神童이라고 불릴 만큼 기이한 재주를 지녔다. 이미 5세의 나이에 시를 지었으며, 9세 때에는 服齋 奇遵이 그를 만나보고 奇童이라 칭찬하며 장차 世子臣이 될 것이라고 예언할 정도였다. 河西는 10세 때 全羅監司로 부임한 慕齋 金安國의 문하에 들어가 小學을 배웠으며, 18세 때에는 己卯土禍로 인해 同福에 귀양 와 있던 新齋 崔山斗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는데, 新齋는 先生을 매양 秋水水壺(가을의 맑은 물과 얼음을 담은 옥 항아리)라고 칭찬하곤 했다. 이후 19세 때 成均館에서 大提學 李荇이 주최한 詩會에서 壯元을 했고, 22세 때 徐敬德, 成運, 白仁傑, 鄭惟吉 등과 함께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다. 24세 때 泮宮에서 退溪 李滉과 함께 수학하였는데, 서로 志氣가 맞아 깊이 사귀며 학문에 정진했으니, “退溪와 교류한 사람은 오직 河西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退溪言行錄>의 기록은 그 때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2.2 出仕 · 致仕期

河西는 31세 때인 1540(중종 35)년 文科에 급제하여 承文院 副正字가 된 데 이어, 32세 때 賜暇讀書에 뽑혀 湖堂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함께 湖堂에 오른 13인과 修稷를 맺었는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河西를 비롯하여 良齋 崔演, 十省堂 嚴昕, 秋波 宋麒壽, 松齋 羅世績, 菊圃 尹鉉, 竹溪 任說, 退溪 李滉, 錦湖 林亨秀, 寓庵 金澍, 尙德齋 鄭惟吉, 汲古齋 李洪男, 好學齋 閔箕 등이다. 湖堂에 오른 그 해 겨울 弘文館 正字 兼 經筵典經 春秋館記事官이 되고, 이듬해 7월 弘文館 著作으로 승진하였다. 34세가 되던 해 4월 다시 弘文館 博士 兼 世子侍講院說書로 영전하여 훗날의 仁宗인 世

子를 輔導하며 군신간의 아름다운 교분을 맺었다. 6월에 弘文館 副翊撰 兼 經筵 檢討官에 올랐으나 머지않아 조정에 환란이 닥칠 것을 우려하고 늙으신 아버지를 돌보아 한다는 이유로 잠시 고향에 머물러 있다가, 겨울 선달에 玉果縣監으로 임명되고 春秋館職을 겸하게 되었다. 中宗이 昇遐하고 인종이 즉위한 뒤 국상 조문을 온 명나라 張承憲 일행을 위한 製述官으로 임명되어 상경한 뒤 바로 귀임하였으나, 7월에 갑작스런 仁宗의 昇遐 소식을 듣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벼슬을 그만둔 이후,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불과 6년 남짓한 짧은 관직 생활이었다.

2.3 講學 · 著述期

河西는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러 차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오로지 講學과 學問 研究 및 著述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37세 때 6월 <孝經刊誤跋>을, 40세 때에는 <大學講義跋>을 지었다. 39세가 되던 해인 1548년 거처를 淳昌 鮎巖村으로 옮겨 초당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선비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였다. 48세 때 <周易觀象篇>과 <西銘事天圖>를 저술하였으며, 49세 때에는 高峯 奇大升과 太極圖說을 강론했다. 50세 때에는 一齋 李恒에게 보낸 글에서 太極陰陽을 하나로 본 것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 해 겨울에는 高峯과 四端七情의 학설을 강론함으로써, 훗날 한국의 論爭史에 길이 남을 退溪와 高峯 간의 四端七情論의 단초를 제공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整菴 羅欽順의 <人心道心說>을 논하면서 蘇齋 盧守愼의 <人心道心辨>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河西는 이듬해인 1560년 5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세속적 명리를 초월하여 보다 근원적인 진리 탐구와 저술 활동에만 전념했다. 이는 “변함없는 충성과 끝은 절개 또한 학문에서 나온 것”⁵⁾이라든가 “사저에 거처하면서부터는 성현의 학문에 전념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사색하고 강구하며 차례대로 힘

써서 실천하니, 만년에는 조예가 더욱 정밀하고 깊었다.”⁶⁾는 평에서도 확인된다. 그 결과 河西는 海東의 濂溪이자 湖南의 孔子로 칭송되며, 마침내 正祖 때 文廟에 配享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河西의 일생은 크게 三期로 나눌 수 있는데, 벼슬길에 나아갔던 6년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修學과 學問 研究, 講學과 著述 등의 활동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3. 交遊 人物과 交遊詩

河西는 1600여 수나 되는 방대한 양의 漢詩를 남겨 놓았는데, 대다수가 인물과의 교유에 관계된 것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만도 4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先生의 다정다감한 성품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先生의 漢詩에 나타난 交遊 人物을, 姻婭와 師弟, 泮宮과 湖堂, 溪山騷客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3.1 姻婭와 師弟

姻婭란 사위의 아버지인 사돈을 뜻하는 ‘姻’과 여자 형제의 남편 사이인 同桴끼리를 뜻하는 ‘婭’가 합쳐진 말이다. 姻戚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婚姻으로 맺어진 관계라 할 수 있다. 先生의 작품에는 姻婭와 師弟의 관계로 형성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山翁起洗菖蒲葉	산 늙은이 일어나 창포 잎에 세수하고,
喜聽東床笑語聲	사위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 기쁘게 들네.
頃刻煩痾同一散	번뇌와 병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니,
恨無醪醕置千罍	천 병의 맛있는 술이 없는 게 한이라네.

(경범에게 示景范)⁷⁾

사위와 만나 정담을 나누는, 정겨움이 듬뿍 묻어나는 작품이다. 山翁은 작자를, 東床이란 사위를 뜻하는 말로, 여기서 趙希文을 지칭한다, 사위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병이나 세상의 번뇌마저 사라져버린 것만 같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름다운 술이 천 병이 있어도 오히려 부족하리라. 趙希文(1527-1578)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字는 景范, 號는 月溪로, 학문과 인격이 고매하고 행실이 돈독했던 인물이다. 1553(명종8)년 別試文科에 乙科로 급제한 후, 1556년 承文院正字를 시작으로, 司憲府掌令, 司諫院獻納, 이조좌랑, 홍문관수찬, 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河西가 玉果縣監으로 있을 때 그를 사위로 삼은 인연으로, 河西의 사위이자 문인이 된 것이다.

幾歲相思苦	몇 해 동안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했던가,
悠悠瀟灑園	멀고 아득한 소쇄원 그곳,
斯人今已矣	그 사람도 이제는 세상을 떠났으니,
病我復何言	병든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리오.
白髮明垂領	흰 머리는 옷깃까지 허영게 드리웠고,
青山黯斷魂	청산은 어둑하여 뉘이 나가네.
空餘五曲水	속절없이 다섯 굽이 물만 남았으니,
臥想泝眞源	누워 신선 세계를 찾아갈 것 생각하네.

(소쇄원 주인을 만함 瀟灑園主人挽)⁸⁾

河西와 가장 가까웠던 인물 중의 하나인 梁山甫의 죽음을 哀悼한 시다.

5) 正祖 45卷 20年(1796 丙辰) 11月8日 己酉, “終始孤忠直節 亦自學問中推來.”

6) 明宗 26卷, 15年(1560 庚申) 1월16日 壬午, “自家食之後 一意聖賢之學 思繹講究 未嘗少間 循循用力 以踐其實 晚年所詣 益精且深.”

7) 『河西集』卷之七, 七言絕句.

8) 『河西集』卷之八, 五言律詩.

작자가 있는 곳이 故人이 살았던 瀟灑園과는 거리가 먼 관계로 몇 해 동안은 그리워하며 괴로워했다. 그런데 瀟灑翁은 어느새 故人이 되었고, 자신도 백발이 옷깃에 드리워질 정도로 늙어 있다. 청산을 바라보니 어둑어둑하여 자신의 혼마저 끊어지는 것만 같다. 頸聯의 ‘黯’은 작자의 심정이 투영된 말이다. 마침내 작자는, 다섯 굽이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 보면 신선 세계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상상해 본다. ‘眞源’이란 神仙이 산다는 천상 세계다. 梁山甫(1503-1557)는 字가 彦鎮, 號는 瀟灑翁으로 靜庵 趙光祖의 문인이다. 스승인 靜庵이 己卯土禍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벼슬을 멀리한 채 星山에 瀟灑園을 짓고, 평생을 학문과 시를 벗 삼아 살았던 인물이다. 은둔한 두 분이고 보면 현실 인식이나 추구하는 바가 서로 비슷하여 더욱 두터운 교분을 나눌 수 있었으리라. 유독 河西가 瀟灑園을 좋아한 것은 소쇄원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의 둘째 딸과 梁山甫의 아들 혼인으로 맺어진 친분이 보다 크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즉 瀟灑園의 아들 子澄은 河西의 문인이자 女婿이다. 河西는 瀟灑翁에게 각별한 호의를 보였는데, 특히 〈奉贈瀟灑園〉이란 시에서는 소쇄원 주인을 세속을 초월한 인물이자 行善을 일삼는 군자로 묘사한 바 있다.

昔病君來見 예전에 병들었을 때 그대가 나를 보러 왔는데,
于今尙未忘 지금까지도 오히려 잊지를 못하네.
茲辰九月望 지금 이 때는 다름 아닌 구월 보름날,
相對兩茫茫 서로 대하니 우리 둘 다 아득하구나.
(양자정이 찾아온 것을 기뻐하며 喜梁甥來)⁹⁾

같은 제목으로 쓰인 두 수 중 그 첫 번째 작품이다. 사위인 梁子澂이 자신을 찾아온 기쁨을 노래한 시다. 작자는 예전에 병이 났을 때 사위가 찾아와

준 정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구월 보름을 맞아 다시 찾아왔으니 그 기쁨이 야 오죽하겠는가. 結句의 ‘茫茫’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할 말을 잊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다. 梁子澂(1523-1594)은 字는 仲明, 號는 鼓巖이며, 瀟灑翁의 아들이다. 河西의 둘째 사위이자 문인으로, 河西의 行狀을 지었다. 河西의 年譜에 보면 39세조에 趙希文과 梁子澂이 매화 가지를 꺾어들고서 河西를 모시는 가운데 술을 마시는 逸話가 소개되어 있다.

病裏悠悠日月侵 병중에 세월은 유유히 흘러가니,
親朋一字抵千金 친한 친구 한 글자는 천금에 해당하네.
夢君連夜見君意 밤마다 그대 꿈꿔 그대 뜻을 아는데
奈又迢迢南海尋 어찌하여 또 머나먼 남해로 가려는지
(인중에게 부치며 寄仁仲)¹⁰⁾

南海로 가려는 柳希春을 염려하는 애뜻한 마음이 가슴을 저미게 한다. 轉·結句에는 자신을 친구로 생각해 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남해로 다시 떠나려는 상대에 대한 야속함이 어우러져 있다. 柳希春은 字는 仁仲이며, 號는 眉巖으로, 부인은 여류시인인 宋德奉이다. 처음에는 崔山斗에게 배우고, 뒤에 金安國에게 사사했다. 1538(중종 33)년 별시문과에 급제했으며, 1544년 사가독서 후 수찬, 정언 등을 지냈다. 1545년 大尹과 小尹의 알력으로 비릇된 乙巳土禍가 일어나자 파직되어 귀향했다. 1547년 良才驛 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함경북도 종성으로 移配되었던 인물이다. 河西가 성균관에서 수학할 때 그가 學識로 있으면서 河西의 병간호를 성심으로 하여 각별한 우정을 쌓은 사이이다. 河西가 얼마나 다정한 인물이었는가는 眉巖이 유배를 가게 되자 아무도 혼인하려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셋째 딸을 시집보낸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9) 『河西集』 卷之五, 五言絕句.

10) 『河西集』 卷之七, 七言絕句.

梨花滿樹日黃昏 배꽃은 만발하고 날은 벌써 황혼인데,
 踈木斜風獨依門 성긴 나무 비긴 바람 홀로 문에 기댔노라.
 想得主人天上臥 아마도 주인님은 천상에 누워
 不堪清思入詩魂 맑은 생각이 시혼에 드는 걸 못 이기겠지.
 (김태용을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해 짓다 訪金著作太容不遇而作)¹¹⁾

河西가 同壻인 金若默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낸 시다. 배꽃이 만발한 황혼 무렵, 주인을 만나지 못한河西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에 기댄 채 서 있다. 주인이 다름 아닌 同壻인 金若默이고 보니 천상에 누워 시상을 가다듬고 있으리라 상상해 본 것이다. 金若默(1500~1558)은 明宗 때의 文臣으로 자는 太容, 號는 誠齋며, 河西의 同壻다. 1540(중종 35)년 文科에 급제한 뒤, 1552(명종7)년에 韓山郡守가 되어 근검과 선정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그 후, 司憲府執義, 楊州牧使, 丙資寺正을 지냈던 인물이다. 河西의 太容에 대한 정은 남달라, 太容을 위해 쓴 輓詞를 비롯하여 10제 14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澈也童孩舊 철은 어릴 적부터 잘 아는 처지
 人間事萬端 인간에는 일이 만 가지라.
 留連倚醉興 연이어 취흥에 젖었는데,
 病廢尙蹒跚 병든 몸 오히려 비틀거리네.
 (정계함에게 주다 贈鄭季涵)¹²⁾

字가 季涵인 鄭澈(1536-1593)과 어울려 醉興에 젖어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河西와 松江은 師弟間으로, 松江은 16세 때 이후 10여 년간 담양의 昌平에 머무르며 河西에게 수학한 바 있다.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두 사람이고 보니, 함께 술을 마시며 醉興에 젖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작자는 늙고 병든 몸이라 몸을 가누지 못하였으리라.

河西의 한시 중에는 姻啞와 師弟에 관계된 인물을 다룬 작품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梁山甫가 80수로 가장 많고, 趙希文 64수, 柳景濂 62수, 梁子澂 50수, 柳希春 31수,¹³⁾ 金若默 15수로 이를 모두 합하면 300여 수가 넘는다. 이 밖에도 弟子에 해당한 인물로 松江 鄭澈을 비롯하여, 門下에서 수학한 錦江 奇孝諫(1530-1593),¹⁴⁾ 壺岩 卞成溫(1530-1614)과 관련된 작품이 남아 있다.

3.2 泮宮과 湖堂

河西는 24세 때 泮宮에서 退溪 李滉을 비롯하여, 蘇齋 盧守愼, 秋蠻 鄭之雲 등과 학문적 교류를 쌓은 데 이어, 32세 때 賜暇讀書에 뽑혀 湖堂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함께 湖堂에 오른 13인과 湖堂修稷를 맺으며 이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교유 양상을 시로 아로새겨 놓았다.

昔年因友生 오래 전에 벗으로 인해,
 聞風阻趨謁 풍문만 듣고 찾아가 뵈지를 못했는데,
 城中偶卜隣 성 안에서 우연히 곁에 살게 되었고,
 拜面才數月 인사 나눈 것이 몇 달 안 됐는데,
 軒昂松鶴姿 의젓한 솔과 학의 모습으로,
 世味堪抹撥 세속의 맛은 다 없애버렸는데,
 一廬山水郡 산수 좋은 곳의 원님이 되어,
 輕颺振華髮 가벼운 바람에 흰 수염 날리면서,
 蕩槳漢中流 한강이라 중류에 노 저어가며,
 回頭戀丹闕 고개 돌려 대궐을 그리워했네.

11) 『河西集』卷之六, 七言絕句.

12) 『河西集』卷之五, 五言絕句.

13) 朴俊圭,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출판부, 1988, 297쪽.

14) 河西와 一齋의 文人으로 堂叔인 奇大升에게 수학하였다. 일생을 벼슬에 오르지 않고,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하여 호남의 隱德君子로 불린 人物.

竹嶺遠在望 죽령을 아스라이 바라다보니,
 去去音塵濶 한 번 가자 소식이 멀어졌네.
 蒼生政顛仰 백성들 그야말로 우러러보니,
 下車救飢渴 수레 내려 굶주림 목마름 구제해 주고,
 簿書笑指揮 웃음으로 부서를 지휘해 가니
 詞訟無相訐 송사도 서로간의 고자질하는 것 없어,
 餘事只吟嘯 남은 일은 단지 읊고 노래하는 것
 超然對清樾 초연히 맑은 숲을 마주 대했네.
 悵望不可攀 바라봐도 따라잡을 길이 없으니,
 睽睢愁楚越 초·월처럼 남북으로 떨어진 것 시름하네.
 (삼가 풍기 선생에게 올림 敬呈豐基先生)¹⁵⁾

河西가 성군관에서 함께 수학한, 당시, 豐基郡守였던 退溪 李滉(1501-1570)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시다. 먼저 1-6구에서는 작자가 退溪를 우연히 서울에서 만나게 된 연유와 함께, 그가 세속을 초월한 松鶴의 풍모를 지닌 군자임을 찬양한다. 이어 7-18구에서는 퇴계가 군수로 부임하게 된 과정과 관리로서의 직분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서리들을 잘 관리한 결과 백성들 사이의 訟事나 이간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2구에서는 退溪와의 거리를 초나라와 월나라로 비유하여 쉽게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李滉은 字는 景浩고 호는 退溪이다. 1528년 진사가 되고 1534년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였다. 1545(명종 즉위)년 乙巳土禍 때 李芑에 의해 삭직되었다가 이어 司僕寺正이 되고 應教 등의 벼슬을 거쳐 1552년 대사성에 재임, 1554년 형조·병조의 참의, 1556년 부제학, 1558년 후 공조참판이 되었다. 1566년 공조판서에 오르고 이어 예조판서, 1568(선조 1)년 우찬성을 거쳐 兩館大提學을 지내고 이듬해 고향에 은퇴, 학문과 교육에 전심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河書集』엔 退溪에 관한 시가 6수¹⁶⁾가 전한다.

15) 『河西集』, 卷之二, 五言古詩.

寡悔何年別 과회 그대를 어느 해에 이별했던가?
 南溟楚樹春 남쪽 바다 이곳 나무에 봄이 됐는데,
 龍鍾幾歲客 못난 나도 몇 해를 나그네 살이,
 江草一番新 강물이 또 한 번 새롭군 그려.
 (과회를 그리워하며 懷寡悔)¹⁷⁾

字가 寡悔인 盧守愼(1515-1590)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시다. 盧守愼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호가 蘇齋다. 乙巳土禍 때 이조좌랑에서 파직되어 1547년 순천으로 유배되고, 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진도로 이배되어 유배 생활을 한 바 있다. 蘇齋는 29세에 식년문과에 장원, 30세에 侍講院司書를 거쳐 湖堂에서 讀書를 했다. 이 밖에 『河西集』엔 蘇齋에 관한 시가 9수¹⁸⁾ 전한다.

聖人司教化 성인이 교화를 맡으셨으니,
 導養無不至 이끌고 기르는 것이 이르지 않음 없는데,
 云何一么麼 어찌하여 조그마한 소인 한 사람이라,
 蠅蝻堯舜治 요순 같은 정치를 어지럽히나,
 狂獄有可疑 옥사에 의심스런 점이 있으면,
 讞議莫容易 심문을 쉽게 하지 말고,
 儻是實有辜 혹시라도 실제로 죄가 있어야,
 決在難赦地 용서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
 南江白日晚 남강에는 해가 저물어 가는데,
 草草空相視 근심스레 서로를 바라본다네.

16) 『河西集』 卷之三, 五言古詩, 〈敬次陶翁李先生滉韻示虎兒〉, 卷之四, 七言古詩, 〈次退溪翁郡齋移竹之韻〉, 卷之五, 五言絕句, 〈見退溪詩因和韻二首〉, 卷之十, 七言律詩, 〈次退溪韻二首〉.

17) 『河西集』 卷之五, 五言絕句

18) 『河西集』 卷之五, 五言絕句, 〈次蘇齋韻〉, 〈次蘇齋贈人韻〉, 〈次蘇齋韻二首〉, 卷之八, 五言律詩, 〈寡悔求詩〉, 〈見寡悔書〉, 卷之九, 五言律詩, 〈次蘇齋韻二首〉, 卷之十, 七言律詩, 〈次韻寄訴齋二首〉.

有酒酌便可 술이 있어 술잔을 주고받을 만하니,
 吾儕盍言志 우리들이 왜 뜻을 말 아니하리.
 (나전환이 부여로 옥사를 판결하러 가는 길을 전송하며
 送羅典翰世績獄扶餘)¹⁹⁾

我慕羅夫子 나, 나 선생을 추모하노니,
 休休德行人 아름다운 덕행의 사람이었지.
 金城推末技 나주에선 문장 잘한다고 추앙받았고
 湖閣厠清塵 호당에선 고관대작 사이에 끼었다네.
 義著論勳處 공을 논한 자리에 의 드러나고
 心存獻策辰 계획 올릴 때마다 늘 마음을 간직했네.
 平生多愧負 평소에 저버린 것에 대해 부끄러움 많아
 此訖益沾巾 이 부음에 더욱 수건 적시네.
 (나세찬을 만함 挽羅松齋世績)²⁰⁾

두 작품 모두 羅世績과 관련된 것이다. 앞의 시는 옥사를 판결하러 떠나
 는 주인공과의 이별의 아쉬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먼저 유교적 교화가 미치
 는 요순 같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소인이 있음을 전제한다. 이어 옥사란 한
 점 의심 없이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로, 실제로 죄가 있을 때만 엄정한 판결
 을 내려 달라고 부탁한다. 끝으로 이별을 앞둔 작자의 심경을 묘사한다.
 다가오는 이별이 너무도 안타까워, 근심스레 서로를 바라볼 뿐이다.

뒤의 시는 전형적인 輓詞의 유형을 그대로 답습한 작품이다. 작자는 故人
 이 된 주인공에 대한 각별한 추모의 정을 드러낸다. 고인은 아름다운 덕행
 을 지녔고, 나주에선 문장으로 추앙받았으며 湖堂에선 고관대작 사이에 끼
 게 되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더욱이 공을 논할 때면 의를 중시했고,
 국가를 위한 남다른 충성심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회고한다. 아울러 故人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많다는 겸손을 잊지 않는다. 羅世績
 (1498-1551)은 조선조 중·명조의 문신으로, 31세에 문과별시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한 때, 金安老를 指鹿爲馬하는 간사한 무리로
 비판하다가 유배된 바 있고, 백인걸, 유희춘 등을 신원하다가 체직되는 등
 고난을 겪었다.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하는 데에 거리끼지 않
 음으로써 잇따른 화를 입었던 지조 있는 선비이다.

青燈相伴兩三人 푸른 등 마주하고 두세 사람 짝이 되어,
 浩蕩奇談驚鬼神 호탕하게 기이한 얘기하니 귀신도 놀래겠지.
 況復知心窓外月 하물며 다시금 마음 아는 창밖의 달이 있어,
 飄然意氣謝風塵 의기가 훨훨 날아 풍진을 벗어나네.
 (경임 사수와 더불어 이야기하며 與景任士遂話)²¹⁾

四郎遊海地 네 선랑이 바다에 노닐던 땅이요
 二子采薇墟 백이와 숙제 고사리 캐던 터로세.
 路歷王公郭 가는 길 왕공의 성곽 거치고,
 邦連箕子居 지방은 기자 살던 곳과 이어지리라.
 秋深沙渚遠 가을이 깊어가니 모래사장은 멀고,
 城古樹陰疎 성은 오래되고 나무 그늘 성긴데,
 萬里君行晚 만 리라 그대 행차 저물녘에 떠나가니,
 霜風動別裾 서리 바람 이별의 옷깃 날리네.
 (사수가 관서로 가는 것을 전송하며 送士遂關西之行)²²⁾

앞의 시는 작자가 字가 경임과 사수인 두 사람과 이야기하며 호탕한 기상
 을 드러낸 작품이다. 세 사람은 푸른 등을 마주하고 기이한 이야기로 밤
 깊은 줄 모르는데, 창 밖의 달마저 분위기를 더하니 어느새 마음만은 속세를
 벗어난 듯하다. 도학적 경향의 작자에게는 드물게 보이는 활달한 기상이

19) 『河西集』卷之三, 五言古詩.

20) 『河西集』續篇, 五言古詩.

21) 『河西集』卷之六, 七言絕句.

22) 『河西集』卷之八, 五言律詩.

넘치는 작품이다.

뒤의 시는 관서 지방으로 떠나는 주인공인 林亨秀(1504-1547)를 전승한 작품이다. 1-2구는 주인공이 가게 될 관서 지방이 그 옛날 네 선랑이 노닐고,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 캐던 수양산이 있는 해주임을 말한다. 3-4구는 주인공이 가게 될 여정의 상상이다. 해주는 고려 왕조가 머물렀던 개성을 거쳐야 하며, 기자가 살던 평양과 이어진 지방임을 말한다. 5-8구는 이별의 상황을 나타낸다. 가을이 깊어 앙상하게 남은 나무로 상징되는 스산한 풍경 묘사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작자의 심경을 투영한 것이다. 林亨秀는 나주 출신으로 河西와 함께 湖堂修楔에 들어간 인물이다. 1535년 별시문과에 올라 賜暇讀書 후 수찬, 전한 등을 거쳐 부제학에 승진했다가 乙巳土禍 때 제주목사로 밀려난 후 파면되었고, 1547(명종 2)년 良才驛壁書事件이 일어나면서 尹元衡에게 尹任 일파로 몰려 絶島安置된 뒤 곧바로 賜死되었다. 학문과 문장은 물론 궁술에도 뛰어났고 풍채가 좋아 國器라고 칭한 인물이다. 河西는 錦湖가 賜死되자 <悼士遂冤死作短歌> 1수를 지어 哀悼한 바 있으며, 河西가 錦湖를 위해 쓴 7수²³⁾의 시가 전한다.

河西의 泮宮과 湖堂에서의 교유 관계를 다룬 작품은 양적으로 많지는 않다. 먼저 泮宮에서의 교유를 다룬 작품으로는 退溪 李滉의 7수를 비롯하여 盧守愼 10수 등이다. 한편 湖堂에서의 교유를 다룬 작품으로는 河西와 수계를 맺은 12인 가운데, 羅世纘, 林亨秀 등을 대표로 한다.

33 溪山騷客

河西는 16세기 호남시단을 선도한 중추적 인물로서, 호남의 巨儒名士들

과 더불어 폭 넓은 교유를 맺었다. 당시 호남시단은 전라도에 산재해 있던 누정을 무대로 형성되었으며, 宋純을 중심으로 한 俛仰亭詩壇과 林億齡, 金允悌, 梁山甫를 중심으로 한 瀟灑園詩壇을 대표로 한다. 두 시단 모두 河西가 거주한 장성과 가까운 담양에 위치하고 있어, 河西는 致仕 이후 이곳을 출입하며 만난 인물들과의 교유 양상을 酬唱, 唱和, 和韻, 贈答 등의 형식을 빌려 작품화하였다.

靜夜燈初耿 고요한 밤 등불이 사뭇 밝은데,
寒床酒未闌 차가운 상에는 술이 아직 끝나지 않았네.
鄉心湖海外 고향 생각은 호해의 밖이라면,
詩興雪風間 시흥은 설풍의 사이로구나.
肝膽專相照 속마음은 오로지 서로 훤히 아는데.
塵囂敢爾干 세상의 시끄러움 감히 침범할 것인가
二更山吐月 이경이라 산의 달 떠오르도록
坐久不知還 돌아갈 줄 모르고 오래 앉아 있네.
(석천의 운에 차하다 次石川韻)²⁴⁾

작자와 주인공은 고요한 밤 등불을 든 채 술상을 마주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 시흥이 발동한다. 정분이 두터운 두 사람이고 보니, 서로의 속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훤히 안다. 주인공인 林億齡(1496-1568)은 호는 石川, 자는 大樹다. 1520(중종 20)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1545년 乙巳土禍 직전에 아우 林白齡과 뜻을 달리하여 고향에 돌아왔다. 만년에 潭陽의 星山에 은거하며 金成遠, 高敬命, 鄭澈 등과 교유하여 흔히 星山四仙으로 불린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한시 2300여 수를 남겼으며, 16세기 호남시단은 물론 조선 전기 한국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河西集』에는 <林石川億齡第酬唱>

23) 『河西集』 卷之二, 五言古詩, <贈林士遂亨秀>, <士遂將出城求別詩>. 卷之三, 五言古詩, <士遂見和又求再贈>. 卷之五, 五言絕句, <士遂求和二首>, <和士遂>. 卷之十, 七言律詩, <和士遂韻贈僧>.

24) 『河西集』 卷之八, 五言律詩.

이란 시25)가 전한다.

位重名高不自居 지위 중하고 이름 높음엔 스스로 거기에 처하지 않고,
 林泉寓意宦情疎 자연 속에 뜻 부치며 벼슬 생각 멀리 했네.
 素琴撫罷期鸞鶴 거문고 타기 마치면 난학과 같이 놀기 기약했고,
 縹帙舒來訂魯魚 옛 서적 펼쳐보며 글자를 교정하네.
 進德每加三省力 덕에 나아가 늘 일일 삼성의 노력을 가하고,
 責難時著萬言書 난세의 책임으로는 때로 만인의 글을 지었네.
 紛紛聲利非吾事 어수선한 명에 이익 내 일이 아니라서.
 方寸還同水月虛 가슴 속은 저 물과 달이 빈 것과 같다음.
 (송동지 임거 시에 차운하여 宋同知林居韻)²⁶⁾

萬里春風草遍青 만 리 봄바람에 풀은 두루 푸른데.
 孝思堂外月初生 효사당 밖 달은 갓 돋아 오르네.
 沈綿一臥三年病 병든 몸 한 번 누워 삼년이 이어지니
 門下忽忽此日情 문하에서 바빠 이별하는 오늘의 심정이라.
 (송동지순을 이별하며 奉別宋同知純)²⁷⁾

宋同知는 작자의 스승인 宋純을 지칭한다. 『河西集』年譜 17세조에 年條가 자세히 않다는 단서와 함께, “宋新平 純을 찾아뵈고 수업하였다. 그 후로 왕래와 문안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²⁸⁾고 기록되어 있다. 앞의 시는, 깨끗한 심성으로 자연과 동화되어 사는 주인공을 찬양한 작품이다. 자연 속에 묻혀 유유자적하는 모습과, 訓誥 공부는 물론이고 修己와 治人에도 소홀함이 없는 주인공의 일상적인 삶을 묘사한다.

뒤의 시는 이별의 아쉬움을 그린 작품이다. 봄바람과 푸른 풀, 갓 떠오른

달 모두 더할 나위 없는 자연의 아름다운 정경이다. 이는 삼 년이나 이어지는 투병에 이별의 아픔까지 겪어야 하는 작자의 심정과 대조를 이룬다.

宋純은 俛仰亭을 중심으로 詩壇을 형성하여 한국문학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宋純의 俛仰亭詩壇은 瀟灑園詩壇과 쌍벽을 이루며 호남시단의 발흥을 꾀한 중요한 시인들의 활동 무대였다. 俛仰亭詩壇에는 林億齡, 奇大升, 林悌, 朴淳, 蘇世讓 등이 주로 활동하였다. 河西는 宋純의 俛仰亭과 관련하여 〈俛仰亭30詠〉²⁹⁾과 위의 2수를 포함한 9수³⁰⁾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春山百花落 봄 산엔 온갖 꽃 다 떨어지는데,
 幸有一枝紅 요행히 한 가지 붉은 꽃만 남았네.
 寂寞茅簷下 적막한 초가집 처마 아래에서
 翻愁酒盞空 도리어 술잔 빈 것만을 걱정하네.
 (백대유에게 주다 그 첫째 贈白大裕一)³¹⁾

春光留草屋 봄빛이 초가집에 남아 있으니,
 醉面欲爭紅 취한 낯이 붉음을 다투려 하네.
 見子忘沉疾 그대 보니 묵은 병 잊어지지만,
 其如雪鬢蓬 형클어진 귀밑털 어찌 하리오.
 (백대유에게 주다 그 둘째 贈白大裕二)

동일한 제목의 3수의 작품 가운데 두 수다. 앞의 시는 봄이 다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산에는 꽃이 이미 다 졌는데, 요행히 초가에서만은 꽃 감상이 가능하다. 작자는 마지막 남은 붉은 꽃 한 가지를 바라보며, 짐짓 술잔 빈 것만을 걱정한다고 말한다. 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의

25) 『河西集』卷之三, 五言古詩.

26) 『河西集』卷之十, 七言律詩.

27) 『河西集』卷之六, 七言絕句.

28) 『河西集』, 『續編』外錄 卷之一, 年譜別本, “二十一年 丙戌 先生十七歲 往拜宋新平 純受業 未詳年條姑附于 此 其後往來問訊不少懈.”

29) 『河西集』卷之五, 五言絕句.

30) 『河西集』卷之八, 五言律詩, 〈次宋相公韻奉別〉. 卷之拾, 七言律詩, 〈俛仰亭韻二首〉, 〈再題俛仰亭二首〉.

31) 『河西集』卷之五, 五言絕句.

역설적 표현이다.

뒤의 시는 정다운 벗과 술잔을 기울이며 늙음을 한탄하는 작품이다. 취한 얼굴은 꽃과 붉음을 다투고, 주인공과의 만남으로 묵은 병마저 잊을 정도다. 그러나 오는 백발만은 막을 도리가 없다.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슴을 저민다. 白光弘(1522-1572)은 장흥 출신으로 1552(명종 7)에 식년문과에 급제, 平安道評事로 나가 최초의 기행가사인 〈關西別曲〉을 지었으며, 三唐詩人으로 칭송되는 白光勳의 형이기도 하다. 이 밖에 河西가 기봉에게 준 7수³²⁾의 시가 전한다.

相逢未盡情談 서로 만날 때마다 늘 정담을 다하지 못하고,
別後悠悠目送南 헤어질 뒤편 아득히 눈으로만 남쪽 가는 길 전송하네.
且況月明霜露夜 더구나 달 밝고 서리 이슬 내리는 밤
度更無寐捨何堪 밤 길도록 잠 못 이루며 생각 어찌 견디리오.
(고봉에게 부치다 寄高峯)³³⁾

亂落明珠醉夢間 취하여 꿈 속에서 밝은 구슬 어지러이 떨어지던데,
聞君又欲向名山 그대가 또 명산을 찾아간다는 말 들었네.
此身早寄煙霞想 이 몸 일찍이 자연 속에 살 생각 가졌으나.
靑鶴仙蹤病未攀 청학동 신선 자취 병 때문에 못 찾았네.
(기명언 대승에게 주다 贈奇明彦大升)³⁴⁾

앞의 시는 河西의 高峯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늘 정담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고봉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 있다.

뒤의 시는 꿈속에서의 상황을 묘사한다. 꿈에 주인공이 신선 찾아 명산으

로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자연 속에 은거한 주인공에 대한 부러움과 그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奇大升(1527-1572)은 조선중기의 성리학자로 호는 高峯이고, 자는 明彦이다. 1549(명종 4)년 司馬試를 거쳐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사관이 되었다. 1563년 賜暇讀書를 하였고 注書를 거쳐 대사간까지 올랐으나 사임하고 돌아왔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특출했으며, 退溪와는 8년간을 성리학 문답으로 편지 왕래를 했다. 河西와는 동향 출신인데다 학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서 高峯은 河西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高峯은 河西가 세상을 떠나자 만사를 지어 河西를 위로했는데, 구구절절 애절한 정이 넘쳐 있다.

溪山騷客과 관련하여, 河西가 한 개인에 대해 10수 이상의 작품을 남긴 경우는 별로 없다. 그 대신 河西가 致仕 이후, 俛仰亭詩壇과 瀟灑園詩壇 등을 오가며 만난 인물들과의 교유 양상을 酬唱, 唱和, 次韻, 贈答 등의 형식을 빌려 표현한,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주제로 한 작품을 대부분을 차지한다.

4. 結言

이상에서 16세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로 文廟에 配享된 호남 유일의 인물인 河西 金麟厚 先生의 생애와 교유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河西의 생애를 크게 1. 成長 · 修學期 2. 出仕 · 致仕期 3. 講學 · 著述期の 三期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成長 · 修學期는 출생 이후 출사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10세 때의 慕齋 金安國과 18세 때의 新齋 崔山斗에게 수학한 것을 비롯하여 성균관 수학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2. 出仕 · 致仕期는 31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이후 36세 때 玉果縣監을 끝으로

32) 『河西集』 卷之五, 五言絕句, 〈贈白大裕光弘其三〉, 卷之六, 七言絕句, 〈送白大裕〉, 〈和白大裕〉, 卷之七, 七言絕句, 〈贈白大裕〉, 〈白正字大裕見訪二首〉. 卷之九, 五言律詩, 〈奉謝白大裕評事〉.

33) 『河西集』 卷之七, 七言絕句.

34) 『河西集』 卷之七, 七言絕句.

벼슬을 그만두기까지 6년 남짓한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3. 講學·著述期는 벼슬길에서 물러난 이후 51세에 생애를 마감하기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河西는 致仕 이후로는 오로지 강학과 학문 연구 및 저술 활동에만 전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

다음으로 河西의 교유 양상을 관계된 인물 중심으로 1. 姻婭와 師弟 2. 泮宮과 湖堂 3. 溪山騷客 등으로 나누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姻婭와 師弟는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사제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지칭하는데, 河西가 남긴 한시 작품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특히 1. 姻婭의 경우, 梁山甫, 趙希文, 柳景濂, 梁子澂, 柳希春, 金若默 등과 관련된 작품량만 280여 수에 이른다. 2. 泮宮과 湖堂의 경우, 泮宮에서 교유한 李滉과 盧守愼, 湖堂修楔를 맺은 12인 중 羅世纘, 林亨秀 등과 관련된 작품이 많다. 3. 溪山騷客의 경우, 河西가 호남시단을 통해 교유한 당시 호남의 거유명사들과 관련한 작품들이다. 河西는 湖南詩壇을 대표하는 두 시단인 俛仰亭詩壇과 瀟灑園詩壇 등을 출입하며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유를 시화한 것으로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河西全集』, 河西先生記念事業會, 1980.

『國譯河西全集』 上·中·下, 河西先生記念事業會, 1987.

朴俊圭, 『湖南歌壇의 研究』, 全南大出版部, 1998.

趙麒永,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1998.

丁益燮, 『湖南歌壇에서의 河西 金麟厚의 位置』, 『東洋學』 17輯, 檀國大學校, 1987.

朴性奎, 『河西 金麟厚의 自然詩 研究』, 『漢文教育研究』 第18號.

『俛仰集』, 『韓國文集叢刊』 26. 民族文化推進會.

朴俊圭, 『松齋 羅世纘의 交遊 人物과 交遊詩』, 『古詩歌研究』 第14輯, 1998.

〈투고일 : 2007. 12. 31. 심사일 : 2008. 1. 16. 심사완료일 : 2008. 2. 11.〉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and companionship of Haseo Kim Yin-hoo

Kim, Dong-ha

Haseo Kim Yin-hoo was a Confucian scholar who was excellent in learning, integrity, and writing. He was singled out as one of the 18 wisest men in Korean history. Moreover, he was a central character in Honam poetical circles in the sixteenth century. He wrote more than 1600 poems throughout his life. And most of his poems were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ed with companionship which resulted from meeting and parting with other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 of his poems, dividing them into two large parts. that is, life part and companionship par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ly, about Haseo's lifetime, he devoted most of his life to the study of Sung Confucianism, teaching students, and writing books on Confucianism except for the period when he entered and later resigned government office.

Secondly, concerning Haseo's companionship, I could discern the characteristics worthy of mentioning.

1. The poems that dealt with relatives by marriage accounted

for more than 17% of all his works.

2. In case of his colleagues of the national school and reading club during his sabbatical year, his poems were mainly about Lee Hwang, Ro Soo-shin, Ra Se-chan, and Rim Hyong-soo.

3. In case of men of refined taste in valleys and mountains, most of his poems were written thorough Sosoewon poetical circle and Myonangjeoing poetic circle after resigning from the government. Haseo had many sorts of companionships with famous scholars and writers who met there, and he put such delicate feelings into his unique poems.

Key words : life, companionship, relatives by marriage, colleagues of the national school, men of refined taste in valleys and mountains, Honam poetical circles